

정에 달한다. 그러나 그 후 점차로 하락하여 1840년대에는 1810년 수준을 약간 밑돌게 되고, 1820년대 수준을 회복하는 것은 187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1820년대로부터 40년대에 걸친 실질임금의 하락은 급격한 것이 아니고 점진적인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 시기가 상공업이 팽창하는 번영의 시기로서 국민 1人當 소득액이 착실하게 증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수공업자를 비롯한 노동자들이 강한 불만과 반발을 느꼈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¹⁶⁾

과연 1830년대는 프랑스의 산업화과정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가장 격렬한 노동운동의 시기였다. 7月革命에서 정치투쟁을 경험하고 의식화된 노동자들은 단결의 필요성을 느끼고 당국의 탄압을 피하기 위하여 상부상조의 친목단체를 가장하면서 協同組合(association)을 조직하였으며 그들 자신의 신문들을 제작하였다.¹⁷⁾ 1831년 11월에는 리옹(Lyons)의 견직공들(canuts)의 대대적인 봉기로 수일간이지만 市政이 그들의 수중에 들어간 일이 있었고 파리에서도 1832년부터 1833년에 걸쳐 많은 파업이 발생하였다. 7月王政下에서의 파업을 세밀하게 연구한 아귀에(Jean-Pierre Aguet)에 의하면 경제상태가 크게 호전되기 시작한 1833년 한 해에 발생한 파업건수는 72건으로서 이는 1831년과 1832년에 발생한 파업건수를 합친 것의 4배나 된다. 그 과반수가 파리와 리옹에서 발생하였으나 다른 지방도시에서도 적지 않게 파업이 발생하였다.¹⁸⁾ 1834년 봄에 파리에서의 노동자들의 봉기가 실패한 후 노동자들의 단결과 언론에 대한 탄압이 한층 더 강화됨으로써 노동자들의 소요는 표면상으로는 진정되는 기미를 보였다.

노동자들의 협동조합은 지하로 숨어들고 1835년의 언론탄압법의 제정으로 左派의이고 공화주의적인 신문과 잡지는 심한 탄압을 받고 노동자들의 신문도 대부분이 폐간되었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명맥이 끊어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당국의 탄압의 눈을 피하면서 지하에서 노동자들의 저항의식은 면면히 유지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고 단결과 조직도 유지되었다. 그리하여 1839년과 1840년에 걸쳐 노동운동은 다시 폭발하게 되었다. 1839년 바뵈프(Babeuf) 계통에 속하는 블랑키(Auguste Blanqui)와 그의 추종자들이 봉기하여 한때 파리시청을 점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1840년에는 파리의 숙련공들의 파업이 연달아 일어났다. 때를 같이하여 「人民의 벌집」(La Ruche populaire), 그리고 「노동자의 도덕적 물질적 이익을 위한 기관지, 작업장」(L'Atelier, organe des intérêts moraux et matériels des ouvriers)이라는 노동자 신문이 발간되었다. 두 신문이 다 같이 심한 어려움을 느꼈고 「人民의 벌집」은 1840년대 중엽까지밖에 계속되지 못하였으나 「작업장」은 1850년까지 속간된

16) 같은 책, p. 160.

17) L'Artisan, journal de la classe ouvrière(수공업자, 노동자계급신문), Le Journal des ouvriers(노동신문), Le Peuple, journal général des ouvriers, rédigé par eux-mêmes(인민, 노동자가 편집한 총노동자신문)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William H. Sewell, Jr., p. 197.

18) 같은 책, p. 208.

으로써 파리의 노동자들은 1840년부터 1848년의 2月革命까지 그들의 정치적 요구를 대변하는 기관지를 가질 수 있었다.

1839년과 1840년은 비단 지하로 숨어들었던 노동운동의 새로운 폭발의 해였을 뿐 아니라 프랑스 사회주의의 발전에 있어서도 주목할 해였다. 즉 1839년에 카베(Etienne Cabet)의 『이카리 기행』(Voyage en Icarie)과 루이 블랑의 「노동의 조직」이 출간되고 1840년에는 프루동(Pierre Joseph Proudhon)의 「재산이란 무엇인가」(Qu'est-ce que la propriété?)가 잇달아 출간된 것이다. 그리하여 1840년대에는 이러한 사회주의사상이 노동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논의되면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이제 현실적인 경험을 통해서 작성한 노동자들의 의식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노동운동이 사회주의사상과 접목을 하게 된 것이다.

‘이카리’라는 공산주의사회를 묘사한 카베가 가장 많은 추종자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조직도 가장 견고한 편이었으나 당시 노동자들의 현실감각에 크게 호소한 것은 블랑의 「노동의 조직」이었다. 블랑의 출발점도 다른 초기사회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빈곤과 생활의 비참이라는 현실이었다.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들은 일 자리를 원한다. ‘나는 팔도 있고 머리도 있다, 나는 힘도 있고 젊음도 있다. 이 모든 것을 가지라, 그리고 그것과 바꾸어 나에게 빵을 나오’. 이것이 바로 오늘의 프롤레타르(Prolétaires)가 요구하는 것이다.¹⁹⁾ 빵, 그것은 일터를 뜻하며 일터는 많지 않다. 가난한 사람에게 일터를 확보한다는 것은 ‘경쟁’이며 경쟁은 노동을 ‘경매’에 부치는 것과 다름없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임금의 하락을 초래한다. ‘무제한의 경쟁의 帝國에서는 임금의 계속적인 하락은 필연적인 일반적 사실’²⁰⁾이며 이러한 ‘임금의 체계적인 하락’(baisse systématique des salaires)은 무제한의 경쟁의 불가피한 결과이다. 그것은 결국 노동자들이 서로를 죽이지 않으면 안되는 산업과정이다.

자본주의체제의 자유경쟁이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의 저하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논한 블랑은 남녀 노동자의 직종별 임금표를 제시하고²¹⁾ 그의 저술이 출간된 이후 임금은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저하하는 반면 식료품 가격은 점진적으로 앙등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시 상세한 직종별, 지방별 임금의 하락 동향에 관하여 상세한 통계숫자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부도덕과 사악과 범죄를 낳으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언제나 ‘거대한 사악의 학교’(une grande école de perversité incessamment ouverte)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셈이다. 혹자는 말한다. 앞날을 내다보고 부유해지도록 조금씩 저축을 함으로써 비참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터무니없는 환상이다. 즐거움은 고사하고 삶조차 영위하기 어려운 사회에서 그것이 될 말인가. ‘노동자의 임금은 언제나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데도

19) 이 논문에서 이용한 Louis Blanc, Organisation du travail은 1850年 Paris에서 出版된 第9版이다. 같은 책 p. 26.

20) 같은 책, p. 27.

21) 같은 책, pp. 28-30.

충분하지 않다. 어떻게 저축하라는 것인가. 질병과 실업이 덜 불행한 사람의 작은 저축을 집어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그 작은 저축이 프롤레타르의 미래의 해방을 위한 자본의 구실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노동자들에게 미래를 위하여 돈을 모으라는 것은 굶주리라는 것과 같다. 10년간이나 결핍과 고뇌 속에서 약간의 자본을 마련했다고 하자. 그러나 그 때는 이미 마음이 늙어 행복을 느낄 수 없고 생애의 꽃다운 밝은 시절은 지나가버린다.²²⁾

불량은 다시 생활의 비참에 기인하는 광범한 棄兒현상을 숫자로 제시하고 미성년 노동을 논한다. 부모들로 하여금 아이들을 착취하도록 강요하는 사회는 '살인체제'(régime homicide)라는 것이다. 인자스러운 프랑스 立法府도 영국의 工場法을 표절하여 8세 이하의 미성년 노동을 금지하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그 法은 실시가능한가. 가난한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라. '나는 8세와 9세의 아이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취업을 금지하고 노동시간을 줄인다면 그만큼 그들의 임금이 감소된다. 나는 또 6세와 7세의 아이를 가졌다. 그들에게 줄 빵이 나에게에는 없다. 만일 윗 아이들의 취업을 금지한다면 당신들은 나보고 아이들을 굶주려 죽게 내버려두라는 것인가'. 아버지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원하도록 강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무슨 권리로 그리고 어떤 정의의 원칙으로 이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폭력을 가할 수 있단 말인가. 대책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社會改革이라고 불량은 말한다.²³⁾

이 미성년 취업과 관련하여 식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고 개탄한다. 그러나 이것도 사회의 실정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학교와 공장을 택하라고 하면 망설임없이 공장을 택할 것이다. 왜냐, 학교는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공장은 아이들에게 임금을 주기 때문이다.

불량은 자유경쟁이 비참을 초래하고, 비참은 무서울 정도로 증대하고 확산되고 있으며 貧者의 多産性으로 노동인구는 증가하나 일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숫자와 통계로 증명하였다고 말하고, 그렇다면 현상대로라면 사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죽이던가 공짜로 먹여살리던가, 즉 잔인과 어리석음의 둘 중의 하나를 택하는 길밖에 없다고 결론짓는다.²⁴⁾

자본주의사회의 자유경쟁은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과 불행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부르조아지와 자본가들까지도 파멸시킨다고 불량은 말한다. 자유경쟁체제하에서는 기업과 자본은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고, 대기업과 대자본의 압력으로 중소기업이나 중소자본은 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사회의 현상은 '각자에게 他者를 파멸시키기 위하여 자멸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는 것이다.²⁵⁾ 불량은 막 싹트기 시작한 자본주의가 독점

22) 같은 책, p. 47.

23) 같은 책, p. 53.

24) 같은 책, p. 56.

25) 같은 책, p. 59.

자본주의로 이행하게 되는 논리를 상당히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경쟁이 인간의 정신과 정서, 그리고 예술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도 통찰하였다.²⁶⁾

자본주의체제하에서의 무제한의 자유로운 경쟁의 원리와 그것이 초래하는 현실적인 폐단을 통렬하게 비판한 블랑은 이를 시정하기 위한 광범한 혁명적인 개혁을 제안한다. 그의 개혁안은 進歩部(Ministère du Progrès)와 프랑스銀行을 대치할 국립은행의 설치로부터 창작의 사회적 공동관리(librairie sociale)에 이르는 광범한 것이다. 우리는 그 중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되는 공업과 농업 분야에서의 사회작업장(ateliers sociaux)을 중점적으로 살피기로 하겠다.

공업분야에서의 사회작업장은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로 산업 전 분야에 확산되며 그것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국민의회에서 토의되고 표결된 立法을 통하여 시행된다. 설립 첫 해는 국가가 작업장의 管理기능적의 계서제를 규정하지만 다음 해부터는 작업장의 노동자들의 자율에 맡겨진다. 그것은 첫 해는 작업장의 노동자들이 서로를 잘 모르고 낯설기 때문에 관리기능적의 계서제를 형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한 해가 지나서 노동자들이 서로를 잘 알게 되면 국가의 개입없이 노동자들이 작업장의 보다 더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기능적을 자율적으로 선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블랑이 제안한 사회작업장은 기본적으로 ‘우애’(fraternité)와 ‘유대’(solidarité)의 원리에 입각한 ‘협동체’(association)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수단의 共有는 물론 작업장의 생산이윤 또한 共有이다. 그러나 작업장의 구성원이 그 이윤을 전부 나누어 가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의 생활비, 개인적으로 유입된 자본금에 대한 이자,²⁷⁾ 시설 유지비와 원자재비 등을 공제하고 이윤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즉 ① 작업장 설립을 위하여 국가가 대여한 자본금의 상환, ② 노약자, 병자, 불구자, 상해자 등을 위한 일종의 사회복지 기금, ③ 다른 산업부문이 당면할지도 모르는 경제적 위기에 대한 지원기금을 다시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작업장의 구성원들에게 분배한다.

블랑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생김새나 신장이 다르듯이 육체적인 힘과 知力에 있어 동등하지 않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취미, 성향, 소질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그러므로 ‘임금의 절대적 평등’(l'égalité absolue des salaires)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이득을 분배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인간에게는 필요(besoins)와 능력(facultés)이라는 兩面이 있으며 필요라는 면에서 인간은 수동적이고 능력이라는 면에서 인간은 능동적이다. 필요라는 면에서 인간은 동포의 도움을 청하고 능력이라는 면에

26) 같은 책, p.61 참조.

27) 이 점에 관해서는 후술하겠다.

서 인간은 동포에 봉사한다. 그러므로 능력에 의한 계서제는 필요하고 또한 효율적이지만 그것에 의한 보수의 배분은 흉악하고 부도덕하다. 그것은 구성원 각자의 필요를 무시하는 것이며 사회작업장 설립의 원리와 목적에도 위배된다. 그러므로 사회작업장에서는 ‘각자는 소질과 능력에 따라 생산하는 동시에 각자는 그의 필요에 따라 소비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평등한 배분이 행하여져야 한다고 블랑은 말한다. 실질적으로 임금의 평등이란 개인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체제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며 협동과 유대체제에서도 과도기적인 것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참된 평등은 작업을 능력에 比例시키고 이득을 필요에 상응시키는 평등’이라고 블랑은 결론짓는다.²⁹⁾

블랑은 사회작업장에 개인 자본가가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는 자본을 제공하고 그것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을 뿐, 협동체로서의 작업장의 구성원이 될 수는 없고 따라서 작업장의 이윤배분에는 참가하지 못한다.

블랑은 궁극적으로 그가 제안한 사회작업장이 전 생산분야에 확산되어 경쟁에 입각한 자본주의체제를 대신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 과정은 권력에 의한 강압이나 수탈, 또는 폭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선의의 경쟁에 입각한 평화로운 체제변화이다. 블랑은 사회작업장과 개인 기업과의 경쟁은 짧은 시일내에 사회작업장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낙관적인 신념을 표명하였다.

블랑은 공업생산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업에서도 사회농장(ateliers sociaux agricoles)의 설립과 그것의 전국적인 확산을 제안한다. 블랑은 프랑스 농업의 최대의 약점을 그 영세성으로 보았다. 소농경영과 그 규모의 영세성으로 프랑스 농민의 대다수는 빈곤에 허덕이며 부채에 신음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성 그 자체도 매우 낮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프랑스 농업을 대규모 경영(grande culture)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영국에서처럼 소농과 빈농을 농촌에서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농장에 흡수한다는 것이 블랑의 제안이다.

사회작업장의 경우도 그러하지만 사회농장의 설립에 있어서도 국가의 막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재정지원의 기금은 철도와 광산의 국유화, 모든 담보재산의 중앙집중, 그리고 사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랑스은행의 국립은행화 등을 통하여 조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블랑의 생각이다. 그러나 사회농장의 경우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토지이다. 이에 관하여 블랑은 통계를 통하여 프랑스의 전국토 중에서 이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가 5억 1천여만 헥타르(hectare)에 달한다고 추산한다.³⁰⁾ 바로 이 통계에 입각하여 개략적인 농업 인구를 500萬 세대로 잡는다면 한 세대당 10hec.의 토지를 할당할 수 있다. 그렇

28) 이 점에 관해서는 블랑 자신의 표현에 약간 혼선이 있었고 따라서 오해도 생긴 것 같다. 같은 책, pp.72-76 참조.

29) 같은 책, p.76.

30) 같은 책, p.112.

다면 사회농장의 구성세대를 50세대로 하여 주민 수는 평균 약 250명, 농경지는 500hec.가 된다. 토지소유 농민이 사회농장의 구성원이 되려면 그의 토지, 가옥, 가축, 농기기 등을 사회농장에 팔아야만 한다.

설립 초에는 사회농장을 운영하기 위한 농장장(directeur)과 그를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되는 평의회(conseil d'association) 위원은 국가에 의하여 임명되지만 다음 해부터는 사회작업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거제로 바꾸어진다.

사회농장에서는 토지의 공유는 물론 모든 것이 공동으로 행하여진다. 주거도 각 세대별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구획된 단일 건물이며 작업과 생산물 관리 그리고 소비도 공동이다. 농장의 생산물로 얻어진 소득은 사회작업장의 경우와 거의 비슷하게 사용되고 분배된다. 즉 국가가 대여한 자본에 대한 이자, 농기기와 농장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 생산비 등 공동비용을 공제한 잉여분은 다시 4종류로 그 용도가 나누어진다. 즉 국가로부터 제공 받은 자본의 상환, 노약자, 병자, 상해자 등을 위한 복지기금, 농장 상호간의 지원기금, 그리고 노동일수에 比例한 구성원 상호간의 배분이다. 그리고 각 농장은 아동교육을 위한 학교를 가지는 것이 도시의 사회작업장과는 다르다. 농장의 규약을 어긴 자는 구성원의 4분의 3 이상의 투표로 농장으로 부터 추방되며 자발적인 이탈자를 포함하여 일단 농장을 떠나는 사람은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토지를 비롯하여 농장의 모든 시설과 재산은 '절대로 양도될 수 없는 집단 자본'(capital collectif et absolument inaliénable)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사회농장도 사회작업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공동생활의 매력과 생산성 향상 등의 유리한 조건들로³¹⁾ 점진적으로 평화로운 과정을 통하여 개인 경영이나 농장을 압도하고 흡수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이 밖에 블랑은 著述활동의 사회화(liberaire sociale)와 금융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논하고 있다. 특히 금융제도의 개편에 관하여 종래 그것이 부유한 주주들의 재산증식에 이용된 것과는 반대로 '프롤레타리아의 해방'에 봉사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사실 블랑이 제안하고 있는 모든 변혁은 '예속의 마지막 형태'(la dernière forme de l'esclavage)인 프롤레타리아의 폐기를 목표로 한 평화로운 사회주의 혁명이었다.

IV. 2月革命과 루이 블랑의 餘生

1848년 2月革命이 일어났을 때 루이 블랑은 거의 유일한 사회주의 이론가로서 임시정부에 참가하였다. 그의 「노동의 조직」은 판을 거듭하면서 널리 읽혀졌고 그 자신은 특정한 정당과 손을 잡는다든지 추종자 집단을 만들 생각이 추호도 없었으나 혁명의 주도세력이었

31) 같은 책, p. 115 이하에 사회농장의 장점을 길게 설명하고 있다.

던 파리의 노동자들 사이에서 큰 명성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임시정부의 멤버들은 대부분이 온건한 공화주의자였으나, 혁명으로 표출하기 시작한 사회문제, 특히 노동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서는 불량이 필요하기도 하였다. 동시에 불량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의 사회혁명의 이론을 실천에 옮길 둘도 없는 좋은 기회를 잡은 셈이다. 사실 임시정부는 혁명 직후 회의장에까지 침입해 온 파리 노동자들의 압력에 밀려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 그리고 노동자들의 단결권 등을 인정하였다. 한편 불량이 원한 것은 그가 생각하고 있던 새로운 노동의 조직과 그것의 실천을 관장할 進歩部의 신설이었다. 그러나 임시정부의 다수 멤버들은 예산을 관장하는 내각의 한 부처의 신설보다는, 노동문제를 연구하고 정부에 정책을 건의할 정부 소속의 위원회였다. 그리하여 회의장소가 뤼크상부르(Luxembourg) 궁전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뤼크상부르委員會로 알려지게 된 ‘노동자를 위한 정부 위원회’(Commission du gouvernement pour les travailleurs)가 신설되고 불량이 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

뤼크상부르委員會의 설립은 어떤 의미에서 2月革命이 가지는 한계와 불량의 본래의 뜻의 좌절을 뜻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정부의 부처보다 격이 낮고, 아무런 실천도 없는 연구 및 정책건의의 일종의 자문기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원장으로 취임한 불량은 일단 만족하고 모든 정력을 위원회의 활동에 경주하였다. 그것은 격하되기는 하였으나 불량은 이 위원회를 그의 사회개혁을 달성하는 출발점으로 삼으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불량은 사회개혁에 관심을 가진 언론인과 이론가 약자명을 자문위원으로 초빙하고 산업별로 노동자 대표의 선출을 요청하여 200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짜임새 있게 구성하고 그 중에서 10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를 핵심 지도부로 운영하였다.

뤼크상부르委員會는 1848년의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의 열망이 실천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표출된 장으로서 매우 흥미롭기는 하나 우리는 그 활동상을 여기서 논할 수는 없다. 대체로 그 활동은 당면한 현실문제의 해결, 노사문제에서의 중재역할, 그리고 장기적인 사회개혁의 구상이라는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다. 실제로 설립초에 노동시간을 파리에서는 10시간, 지방에서는 11시간으로 단축하고 下請制度(marchandage)를 개선하는 한편 사회작업장의 실험도 시도하였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장기적인 사회개혁에 관한 이론적인 토론을 거듭한 끝에 法律案 형태로 최종적인 계획을 작성하였는 바 그 第1條는 다음과 같다.³²⁾

第1條 노동부를 신설할 것이며 그 특정사명은 사회혁명을 준비하고 점진적으로 평화롭게 총격없이 프롤레타리아를 폐지하는데 있다.

다음 第2條 이하에서 사회혁명과 프롤레타리아 폐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32) Jean Vidalenc, Louis Blanc, p.37-39에 그 全文이 소개되었다.

바 그것은 루이 블랑이 「노동의 조직」에서 주장한 것과 거의 同一하다. 물론 당시 지도적인 사회주의자가 블랑 혼자만은 아니었다. 오랜 옥중생활에서 풀려난 블랑키(Blanqui)가 있었고, 프루동(Proudhon)도 있었다. 그러나 적어도 2월혁명기에 관한 한 그 누구도 혁명적인 사회계획의 구상에 있어 블랑만큼 체계적인 이론을 전개하고 그것이 널리 노동자계급에게까지 수용된 사회주의 이론가가 없었다는 것을 상기 계획안은 뚜렷하게 말해주고 있다.

혁명 직후 임시정부의 右派 各료들은 노동자들의 압력과 사회주의의 득세를 막기 위하여 그리고 실질적인 현실문제로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실업자 구제를 위하여 국립작업장(ateliers nationaux)을 설립하고 그 운영의 책임을 右派 공화주의자인 토목부(오늘의 건설부)장관에게 맡겼다. 그 명칭이 블랑의 사회작업장과 유사했기 때문에 당대인들은 이를 혼동하여 국립작업장의 폐단을 블랑과 워크상부르委員會의 책임으로 돌리고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국립작업장은 블랑의 사회작업장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일종의 실업자 구제기관에 지나지 않았다. 혁명의 원인이 되기도 한 경제적 불황에 혁명의 소용돌이로 사회불안이 가지지 않아 파리에선 실업자가 많았고 그 수는 혁명 후에도 증가하는 추세였다. 설립초인 3月初의 수용인원이 6,100명이던 것이 폐쇄할 무렵인 6月 15日에는 118,310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별로 할 일도 없는 이 막대한 실업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막대한 재정지출이었고 따라서 부르조아지로부터 맹렬한 비난이 쏟아져 나온 것도 무리는 아니다. 右派 各료들이 이러한 사태를 짐작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블랑의 인기를 저하시키고 그의 사회작업장의 구상을 불신케 하려는 일종의 음모였다는 해석이 나올법도 하였다.

그러나 국립작업장의 문제보다도 혁명 후의 전반적인 정국이 파리의 노동자와 블랑에게 불리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左派세력은 제헌의회 선거를 약간 연기시키는데 성공하였으나 4月 23日에 21세 이상의 성인남자의 보통선거로 전국적으로 실시된 총선거의 결과는 사회주의자와 노동자를 비롯한 左派 세력의 완전한 패배였다. 블랑은 당선되었으나 라스파유(Raspail), 블랑키 그리고 카베(Cabet)와 같은 쟁쟁한 左派 입후보자가 떨어지고 노동자 출신으로 당선된 자도 극히 소수였다. 그것은 아굴롱(Agulhon)의 표현을 빌리면 ‘프랑스는 임시정부의 다수파의 노선에 따라 투표하였다. 즉 사회혁명이나 왕당파의 반동보다 자유로운 共和政을 원한 것이다.’³³⁾ 5月 4日 첫 회합을 가진 제헌의회는 재차 장엄하게 共和政을 선언하고 새로운 조약을 통하여 임시정부체제에 중지부를 찍었다. 총선거를 통하여 새로이 수립된 ‘共和國은 점점 더 사회주의를 적대시하고 공공연하게 보수화하고 끝내는 反動化하였다.’³⁴⁾

이러한 정국의 변화에 불만을 품은 파리의 노동자들은 5月 15日 폭동으로까지 확대된 대

33) Maurice Agulhon, 1848 ou l'apprentissage de la république, 1848~1852 (1973), p. 55.

34) 같은 책, p. 59.

대적인 시위와 의사당 난입을 통하여 제헌의회의 해산과 새로운 임시정부의 수립을 요구하였다. 때마침 의사당에 있던 블랑은 억지로 군중들에게 끌리나가 그 날의 승리자로 환호를 받았다.³⁵⁾ 후에 규탄을 당했을 때 그는 자기 변명에 성공하기는 하였으나 5월폭동으로 블랑을 비롯한 左派세력은 오히려 큰 손상을 입었다. 제헌의회는 6월폭동후 급격하게 보수화하고 반동적인 경향까지 보였다. 6월 21일의 국립작업장에 관한 정부결정은 작업장의 25세 이하 노동자는 軍에 입대하고 나머지 노동자는 지방에 일자리를 찾아 떠나도록 하였다. 국립작업장의 실질적인 폐쇄였고 6월폭동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그러나 폭동이 진압된 직후인 7월초에 정부는 국립작업장을 무조건 완전 해체해버리고 민중적인 신문과 클럽을 탄압하는 조치를 취하고 5월 15일과 6월 23일의 사건을 조사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동 위원회는 그 사건들에 관련된 사회주의자나 그 동류를 남김없이 고발하여 규탄하였다. 7월 25일 正午부터 시작된 제헌의회의 회의는 다음 날 새벽까지 계속되었다. 규탄의 대상이 된 블랑과 코시디에르(Caussidière)의 변명은 이미 마음을 정한 다수와 의원들을 움직이지 못하고 504대 252표로 두 의원에 대한 면책권이 박탈되었다. 의사당을 나온 블랑은 동료집에 잠시 머물다가 체포의 손이 뻗칠 것을 두려워하는 친구들의 권고로 서류와 돈을 찾으러 간 동생을 기다릴 틈도 없이 베르기에를 거쳐 런던으로 亡命의 길을 떠났다. 1848년 2월에 희망과 기대 속에 출범한 제 2공화정은 '4월에 최초의 희생자를 내고 5월에는 최초의 수감자가 나왔으며 6월 이후 최초의 망명자가 생겼다.'³⁶⁾

블랑의 런던 망명생활은 1870년 나폴레옹 3세의 몰락까지 계속되었다. 20년이 넘는 긴 망명생활에서의 소득은 훌륭한 반려자를 얻은 것과 「1848年 革命史」(Histoire de la Révolution de 1848, 2vols) 저술과 「프랑스 革命史」(Histoir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12vols)의 완성이었다. 1870년 9월초에 귀국한 블랑은 패전의 와중에서 실시된 제헌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다시 의원생활을 시작하였다. 의회의 다수파는 알자스-로렌를 프로이센에게 양도하고 강화조약을 맺는 쪽으로 기울어졌으나 블랑은 완강하게 제재의 국경선을 지킬 것을 주장하였다. 1871년 1월 하순에 파리로 항복하고 3월에는 독일과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파리의 민중은 이에 불복하고 파리의 국민방위군을 장악하여 베르사이유에 자리잡은 정부군에 대항하였다. 이 '파리 코뮌'(Paris Commune)에 블랑은 참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코뮌의 지방분권적인 연방제 강령에 반대하였다. 블랑이 귀국하여 의회에 참석하였을 때 왕당파는 물론이지만 온건한 공화주의자들도 그를 1848년의 위험한 혁명적 사회주의자로 보고 경계하였으나 1870년대에 이르러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은 이미 블랑을 떠나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즉 프루동주의와 마르크스주의가 두각을 나타내며 프랑스의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의 주류를 형성하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계로 블랑은

35) Leo A. Loubère, Louis Blanc, p.123 이하에 자세한 설명이 보인다.

36) Maurice Agulhon, 1848, p.75.

파리 코뮌에 참가하지 않았고 그 강령의 일부에 반대하였으나 정부의 잔인한 진압행위를 비난하고 코뮌참가자에 대한 사면을 끈질기게 주장하였다. 일부 사회주의자들은 블랑이 코뮌에 참가하지 않은 것을 끝끝내 용서하려고 하지 않았으나 블랑은 코뮌참가자에 대한 사면운동을 끈질기게 계속하여 1880년 드디어 이에 성공하였다.

1881년 블랑은 귀국 후 세번째로 의원에 당선하였으나 그는 이미 노약해졌고 건강도 악화하여 정치활동은 여의치 않았다. 더구나 5년 전에 사랑하던 아내를 잃어 마음에 타격을 받고 있었다. 그는 정치활동을 뜻을 같이 하는 클레망소(Clemenceau)에게 거의 일임하고 칸느에 요양을 갔다가 그 곳에서 사망하였다. 그 시체는 파리로 옮겨져 그의 아내와 그가 죽기 몇달 전에 사망한 동생 샤를르의 무덤옆에 안장되었다. 그의 나이 71세였다.

엔겔스는 푸리에, 로버트 오웬 그리고 생-시몽 등 초기사회주의자들의 사상이 空想的인 성격을 지니게 된 이유를 대략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9세기 초에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이와 관련된 부르조와지와 프롤레타리아의 적대관계의 발전이 아직도 불완전하였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 상황이 사회주의의 창설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다. 즉 조잡한 자본주의생산과 조잡한 계급관계에 대응하는 이론 또한 조잡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문제의 해결은 아직도 덜 발전한 경제적 조건 속에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공상주의자들은 그것들을 인간의 두뇌로서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새로운 보다 더 완전한 사회체제를 발견하여 선전을 통하여 그리고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모범적인 실험의 실례를 통하여 그것을 밖으로부터 사회에 떠맡기려 하였다. 그들의 새로운 사회체제는 처음부터 공상적일 수 밖에 없었고 세부를 보다 더 완전하게 다듬으면 다듬을수록 그 내용은 순전한 환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³⁷⁾

19세기 초와는 달리 1830년대 말에는 아직도 완전하지는 않으나 프랑스에서도 자본주의의 발전이 상당한 정도 진전되었고 그 폐단과 더불어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적 대립도 명확해지면서 첨예해졌다. 루이 블랑의 사회주의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 상황과 경제적 여건을 바탕으로 초기사회주의자에 비하면 공상적인 성격이 줄어들고 훨씬 더 현실적이면서 실천가능한 면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여전히 계몽주의와 자코뱅주의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었으며, 따라서 계급투쟁이나 폭력적인 혁명을 통한 프롤레타리아 獨裁라는 개념은 전혀 낯설은 것이었다. 그렇기는 하나 그는 1840년대에 가장 인기있는 사회주의 이론가였고 제 2共和政을 가장 잘 대표하는 인물 중의 한 사람이었다.³⁸⁾

그렇다면 우리는 루이 블랑의 위치를 초기사회주의자와 마르크스, 엔겔스의 중간에 설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루이 블랑의 사상은 과거에 존재했던 역사적 유물에 불

37) Friedrich Engels, 위의 책, pp.35-36. 참조.

38) Jean Vidalenc, 위의 책, p.68.

과한 것이고 그 현재적 의미는 없는 것일까. 반드시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최근에 그의 著作選集을 출판한 위밀리에르(Jean-Michel Humilière)는 루이 블랑의 사상이 그 현대성(modernité)으로 말미암아 미테랑(Mitterand) 大統領의 정책 속에 반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블랑의 사상을 ‘人民의 운명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사람들의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인도주의적 사회주의(socialisme humaniste)’라고 규정하였다.³⁹⁾ 인도주의적 사회주의란 약간 낯선 말이다. 우리가 이 글을 끝맺는 말로 인용하려는 블랑의 주장이 그 뜻의 일단을 설명해줄 것이다.

폭력이란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만 두려운 것이다. 질서의 최상의 방패는 연구다. 다행히 오늘날 인민은 분노가 뼘을 응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썩을 생산하는 데는 무력하다는 것, 그리고 맹목적이고 사나운 참을성 없음은 정의와 사랑의 씨앗을 질식시켜버릴 위험을 지닌 파괴를 가져 올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다면 문제는 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대시킴으로써 보편화(universaliser)하는 데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 아무런 예외도 없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인간성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⁴⁰⁾

39) Louis Blanc(1811~1882), présenté par Jean-Michel Humilière (1982), pp.7-8.

40) Louis Blanc, Organisation du travail, p.19.

Social Change of Europe in the Former Half of the Nineteenth Century and Louis Blanc's Ideas of Labour

Min Suk-Hong

European society of the former half of the nineteenth century was heavily influenced by the Dual Revolution, that is, the French Revolution and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 Industrial Revolution produced the working class and the problems of labour, though it accomplished the development of modern capitalism. In the nineteenth century the so-called utopian socialists — Fourier, Owen, Saint-Simon — attempted to solve these problems in their own ways. They tried 'to discover a new and more perfect system of social order and to impose this upon society from without by propaganda, and, wherever it was possible, by the example of model experiments. These new social systems were foredoomed as utopians' (Engels).

Louis Blanc(1811~82), born later than these utopians and lived through almost the whole century, showed a more practical and concrete way to socialism. He vehemently condemned the limitless competition of capitalist society and deeply sympathised with the poverty-ridden workers. In order to eliminate such social wrongs he proposed to create 'the social workshop', a kind of producer's corporation. Initially established under state sponsorship, these workshops should be run by the workers themselves. Blanc believed that his social workshops would prevail over the existing factories based on competition because of their increased productivity based on fraternal solidarity. In the same way, he expected a fraternal absorption of the bourgeoisie rather than a violent revolutionary triumph over it by the proletariat. Blanc firmly believed that a democratically elected republic would willingly initiate the social revolution without violence and terror. So there would be no dictatorial institutions, for even a brief time.

Blan's ideas gained wide popularity among workers during 1840s and had a precarious chance to be realized in the spring of 1848, but failed. Blanc's socialism stood between the utopian socialism and Marxism, chronologically and ideologically. His belief in peaceful transition to socialism may have some connection with modern French humanistic socialism(socialisme humaniste).